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內賜本 研究

A Study on Naesab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 재 준 (Lee, Jae-Jun)*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主題別 分析 |
| 2. 國立中央圖書館의 沿革 | 6. 賜給處 分析 |
| 3. 時期別 分析 | 7. 結 論 |
| 4. 板種別 分析 | <참고문헌> |

< 초 록 >

內賜本이란 국가에서 간행한 官撰書를 왕명으로 기관 및 개인에게 하사한 서적이다. 기관은 史庫, 官廳, 書院, 鄉校를 이르고 개인은 王室宗親 및 大小臣僚를 이른다. 서적이 간행되면 기본적으로 史庫를 비롯한 주요 관서에 賜給되었고, 大小臣僚를 포함하여 간행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도 賜給되었다. 또한 국가의 공식 행사(嘉禮, 冊封, 回甲, 科擧, 功役 등)가 마무리 된 후 褒賞으로 賜給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의 時期, 板種, 主題, 賜給處를 분석하여 소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要語: 내사본, 내사기,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ljj7523@aks.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접수일: 2015년 3월 8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ABSTRACT>

The Naesabones (內賜本) are the books awarded to the organizations and the individuals by the Kings of Joseon (朝鮮) Dynasty. The organizations include the history archives [史庫], the government offices [官廳], the private academies [書院] and the county public schools [鄉校]. The individuals include the royal family members and the members of the cabinet. In Joseon Dynasty, the books were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offices, the members of the cabinet, and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printing that book. Also after the official ceremonies, the books were given as the rew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of the naesabones now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ey words: Naesabon, Naesaki,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1. 緒論

內賜本은 왕명에 따라 內賜記를 작성하고 御寶를 날인하여 각급 기관과 개인에게 하사한 官撰書이다. 내사기와 어보가 있어 개별 컬렉션마다 예술성이 가미된 것은 물론, 기록된 내용은 서적 사급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사료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서적이 처음 인쇄될 당시에는 모두 동일한 보통의 도서일 뿐 특별한 가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후에 인쇄된 ‘여러 질’ 중 일부의 질에는 내사기가 작성되고 어보를 찍는 2차 가공이 가해지며,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사급되는 유통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질’의 서적과는 다른 내사본만의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사본은 조선시대 書籍史 및 流通史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일 판본이라도 내사본이 아닌 서적과는 가치에서 큰 차이가 있다.

관련 연구는 沈喆俊(1988), 安秉禧(2002), 千惠鳳(2003) 등의 결과물이 있다. 沈喆俊은 『日本訪書志(1988)』에서 일본에 所在하고 있는 한국본 전적을 지역별·기관별로 나누어 조사하며 서지 사항에 내사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고,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研究(1990)』에서 당시까지 조사된 내사본 현황과 내사기 작성 형식을 분석하였다.¹⁾ 安秉禧는 『內賜本の 한 研究(2002)』에서 사급제도와 내사인의 使用例에 대해 설명하였고,²⁾ 千惠鳳은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2003)』의 목록 기술에서 내사본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하였다.³⁾ 연구자는 이미 규장각, 장서각, 일본소재 내사본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⁴⁾

1) 沈喆俊, 『日本訪書志』(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沈喆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서울: 一志社, 1990).

2)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제8집(2002. 12), 5-30.

3)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서울: 지식산업사, 2003).

4) 李在俊·宋日基, “藏書閣 所藏 內賜本の 書誌的 研究,” 『서지학보』 33호(2009), 153-184.
李在俊·宋日基, “奎章閣 所藏 內賜本 研究: 個人 內賜本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365-385.

李在俊·宋日基, “日本 所在 16世紀의 朝鮮 內賜本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2013. 12), 29-44.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1970년부터 1980년까지 간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 6책을 중심으로 그 동안 출간된 해제집, 도록 등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의 원문 정보를 이용하고, 가능한 자료는 직접 실사하였다.

2. 國立中央圖書館의 沿革

1945년 서울 소공동에서 ‘국립도서관’이란 명칭으로 처음 개관하였다. 18년 후인 1963년 명칭을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였고, 1974년 위치를 남산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반포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1988년에 건립되었다. 2006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9년 ‘디지털도서관’, 2012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개관하고 이어 2013년에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국립세종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900만권 이상의 일반도서와 27만여 점의 고전적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보 1종, 보물 9종을 비롯하여 서울시유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의 약 40%는 ‘一山文庫’ 본이다. ‘一山’은 서지학자이자 장서가인 金斗鍾 선생의 號이다. 그는 평생 수집한 고전적을 1970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고전자료실에 개인 문고가 설치되었다. 이 문고 안에는 여러 종의 금속활자본을 비롯하여 목판본, 목활자본과 壬亂 前 간행된 귀중본이 속해 있어 판본학 연구에 큰 자산이 되며 사료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1613년(光海君 5)에 간행되어 1614년(光海君 6)에 배포된 『東醫寶鑑』 초간본 일부와 『諺解痘瘡集要』 등 고전 의서를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학계의 연구 활동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⁵⁾ 이 외에도 任昌宰 선생의 勝溪文庫,

安洪天 선생의 義山文庫, 星湖文中에서 기증한 星湖文庫에도 내사본 일부가 전해지고 있으며, 도서관 자체 수집본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내사본의 시기, 판종, 주제, 사급처 등의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다.

3. 時期別 分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27만여 점에 이르는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중 내사본을 조사한 결과 145건이 확인되었다.⁶⁾ 내사본 145건의 분포 시기는 1553년(明宗 8)에서 1901년(光武 5)까지 약 350년에 걸쳐있다. 壬亂 이전의 내사본은 明宗朝 1건, 宣祖朝 1건 등 2건에 불과해 이 시기 내사본의 희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란 이후의 내사본은 宣祖朝 1건, 光海君朝 3건, 顯宗朝 2건, 肅宗朝 15건, 英祖朝 49건, 正祖朝 32건, 純祖朝 1건, 憲宗朝 5건, 哲宗朝 8건, 高宗朝 27건이다. 임란 이후의 내사본은 무려 143건에 달하고 있어 대부분 조선 후기의 내사본임을 알 수 있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5건의 내사본의 시기별 분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5) 대한민국 최초의 기업박물관이자 의약박물관으로 1964년 서울 상봉동에 ‘한독약사관’을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1974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한독의약박물관’으로 개칭하였고, 1995년에 다시 층복 음성으로 이전하였다. 근대의학의 선구자 池錫泳(1855-1935) 선생의 유품과 의학 관계 고전적 4,000여 점 소장되어 있고, 각종 의료재료와 의료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6) 국내·외를 합한 현전 내사본은 약 3,000여 건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은 200여 건 이상으로 약 6-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내사기와 내사인이 모두 존재하여 사급 시기와 賜給處를 알 수 있는 145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내사기가 부재하는 원인은 훼손으로 멸실되었거나 고의로 절취한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御寶만 날인된 채 전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추산한 수치이므로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표 1> 시기별 현황

時期	王朝	數量(件)	比率(%)
壬亂以前	明宗	1	0.7
	宣祖	1	1.4
壬亂以後	宣祖	1	
	光海君	3	2.1
	顯宗	2	1.4
	肅宗	15	10.3
	英祖	49	33.8
	正祖	32	22.1
	純祖	1	0.7
	憲宗	5	3.4
	哲宗	8	5.5
	高宗	27	18.6
합계		145	100

이 가운데 最古本은 1553년(明宗 8) 藝文官 奉教 鄭得⁷⁾에게 반사한 『春秋胡氏傳集解』로 내사본으로는 국립도서관 소장본 중 가장 앞선 시기에 해당된다. 1568년(宣祖 1) 副護軍 宋純에게⁸⁾ 반사한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와 더불어 壬亂 前에 간행·배포된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더불어 宣祖朝의 『諺解胎產集要(1608)』와 光海君朝의 『訓蒙字會(1613)』, 『東醫寶鑑(1614)』, 『纂註分類杜詩(1615)』도 현전본이 보기 드문 귀중본이다.

光海君 이후의 내사본은 戊申字가鑄成된 顯宗朝부터 등장하며, 관찬서의 간행이 활기를 띠는 肅宗朝부터는 전존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개별 왕조로는 33.8%에 해당되는 英祖朝의 내사본이 가장 많이 남아있고, 다음은 正祖朝로 22.1%를 차지하고 있다. 두 왕조의 내사본이 55.9%로 소장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7) 明宗朝에 持平, 獻納, 端川郡守 등을 역임하였다.

8) 1493(成宗 24)-1582(宣祖 15). 號는 企村·侷仰亭이며 本貫은 新平(당진)이다. 1493년(成宗 24)에 출생하여 1519년(中宗 14) 別試文科에 乙科로 급제하였다. 벼슬은 漢城府判尹과 右參贊에 이르렀다. 시가에 뛰어나고 음률에 밝았으며, 歌壇을 형성하여 수많은 한시와 국문시가를 남기는 등 조선의 시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있다.⁹⁾ 純祖朝부터는 種數와 部數가 前代에 비해 크게 감소하다가 高宗朝에 와서 다시 증가되고 있다.¹⁰⁾ 왕조별 점유율이 10%가 넘는 肅宗朝, 英祖朝, 正祖朝, 高宗朝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으로 전존량이 미미하다. 哲宗朝에 반사된 내사본은 5.5%를 차지하는데, 이 중 『史記英選』과 『梁大司馬實記』는 正祖朝에 간행되었던 잉여분이 추후 사급된 것이므로 이 시기에 주도된 출판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소장본 중 最古本이 1553년(明宗 8)의 『春秋胡氏傳集解』라면 반대로 가장 최후에 반사된 내사본은 1901년(光武 5) 前郡守 李哲應¹¹⁾의 『璿源系譜記略』이다. 御製序와 總叙, 璿源先系, 璿源世系, 列聖八高祖圖 등이 수록된 首本 1책만 전해지고 있다.¹²⁾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서적의 사급 제도가 대한제국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板種別 分析

판종에서 나타나는 내사본의 가장 큰 특징은 금속활자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금속활자가 주조되었고 관찬서 인쇄에 적극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도 이처럼 금속활자본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목판본과 목활자본, 탁본, 필사본 등 5가지 판종이 뚜렷이 대별되고 있다.

-
- 9) 이 결과는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내사본의 시기별 현황과 비슷하다. 세 기관 모두 英祖의 御製書와 正祖의 繪音書가 다량 소장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 10) 高宗朝에는 『大典會通』, 『三班禮式』, 『六典條例』, 『兩銓便攷』 등의 典禮書와 斥邪繪音이 대량으로 광포되었고, 비교적 근래의 간행본인 만큼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 11) 高宗朝에 음성현감을 지냈다. 음성군 읍내리에 ‘愛民善政碑’가 남아있다. 자세한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 12) 1783년(正祖 7) 正祖가 직접 쓴 御製序文이 수록되어 있고, 序文의 마지막 내용과 함께 판각된 ‘奎章之寶’가 인쇄되어 있다.

<표 2> 판종별 세부 현황

板種	書名	數量(宗)	比率(%)	
金屬活字本	乙亥字	春秋胡氏傳集解	1	0.9
	戊申字	心經附註Ⅰ, 新刊仁齋直指方論, 詳說古文眞寶大全,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大學診解, 大學章句大全, 中庸章句大全, 聖學輯要, 皇明通紀輯要, 明紀編年, 近思錄, 心經附註Ⅱ, 肅廟寶鑑, 女四書, 小學診解, 小學集註, 心經附註Ⅲ, 闡義昭鑑, 御製自醒錄, 御製孝梯篇, 御製抑箴, 國朝樂章, 御製小學指南, 繼述受宴錄, 君臣同會錄, 御製續永世追慕錄, 受爵廣韻錄, 便殿耆耇同會錄, 辛卯重光錄, 耆科廣載錄, 永垂百世錄, 追慕垂戒錄	32	29.6
	顯宗寶錄字	英宗大王御製續編, 兩陵誌狀續編,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4	3.7
	壬辰字	慶運宮廣載錄, 御製繪音, 御製論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繪音	3	2.8
	丁酉字	文臣講製節目, 唐宋八子百選, 諭入庭宗親文武百官繪音, 諭中外大小臣僚繪音,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繪音, 諭湖南民人等繪音, 諭大小臣僚繪音,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繪音, 御製表忠繪音, 加毳申禁事目, 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繪音, 朱書百選, 史記英選,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繪音, 奎章閣志	15	13.9
	壬寅字	瓊林開喜錄, 文苑酬獻續編	2	1.9
	整理字	太學恩杯詩集, 廣進詩Ⅰ, 廣進詩Ⅱ	3	2.8
	再鑄整理字	國語, 皇明詔令	2	1.9
	全史字	兩銓便攷Ⅰ, 六典條例, 兩銓便攷Ⅱ, 弘文館志	4	3.7
		小計	66	61.2
木活字本	訓練都監字	纂註分類杜詩(甲寅字體), 東醫寶鑑(乙亥字體), 診解胎產集要(乙亥字體)	3	2.8
	生字	廣載軸Ⅰ, 廣載軸Ⅱ	2	1.9
		小計	5	4.7
木板本	鐫刻(乙亥字)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	1	0.9
	-	訓蒙字會, 周易傳義大全, 列聖御製, 列聖御筆, 近思錄, 光國志慶錄, 孝經大義, 御製大訓Ⅰ, 御製大訓Ⅱ, 御製訓書, 瑤源系譜記略Ⅰ, 揄攘盛烈錄, 迎恩慶喜錄, 文廟享祀錄, 御製御筆, 御製讀書錄, 御製近八裕昆錄, 御製勤政訓諭, 續光國志慶錄, 御製樹德全編, 舊邸庭中廣韻錄, 英祖御筆, 王世子冊封慶龍虎榜, 乙卯式年司馬榜目, 四部手圈, 國朝寶鑑, 梁大司馬實記, 大典會通, 奎章全韻, 三班禮式Ⅰ, 三班禮式Ⅱ, 瑤源系譜記略Ⅱ	32	29.6
		小計	33	30.5
拓本	石刻	黔巖紀蹟碑銘	1	0.9
	木刻	代券宸翰	1	0.9
		小計	2	1.8
筆寫本	-	景賢堂廣載帖, 御製廣載帖	2	1.8
		小計	2	1.8
合計		108	100	

판종의 구성은 금속활자본 61.2%,¹³⁾ 목판본 30.5%,¹⁴⁾ 목활자본 4.7%, 탁본 1.8%,¹⁵⁾ 필사본 1.8%로¹⁶⁾ 금속활자본의 비율이 가장 높다. 자세히 구분하면 목판본과 무신자본이 각각 29.6%, 정유자본이 13.9%를 차지하고 있다. 세 판종을 합산하면 73.1%로 전체 판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판종은 각 1종~4종 정도에 불과하며, 비율로도 각 4% 미만에 해당되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이 전체 내사본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활자본 중에는 무신자본과 정유자본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쇄에 사용된 9종의 金屬活字 중 乙亥字만 壬亂 前에 만들어졌고, 8종은 조선후기에 제작되었다. 木活字는 壬亂 직후 만들어진 訓鍊都監字와 淸의 字典體를 모방한 正祖朝의 生生字 등 2종이다.¹⁷⁾

5. 主題別 分析

四分法에 의거하여 주제를 살펴보면 經, 史, 子, 集의 대분류 안에 21개의 항목으로 세분된다.¹⁸⁾ 經部는 易類, 春秋類, 孝經類, 四書類, 小學類 등 5개 항목, 史部는 編年類, 別史類, 雜史類, 抄史類, 詔令奏議類, 傳記類, 職官類, 政書類,¹⁹⁾ 金石類 등 9개 항목, 子部는 儒家類, 醫家類, 藝術類, 雜家類 등 4개 항목,

13) 金屬活字本의 구성은 戊申字本 48.4%, 丁酉字本 22.8%, 顯宗實錄字本 6.0%, 全史字本 6.0%, 壬辰字本 4.6%, 整理字本 4.6%, 壬寅字本 3.0%, 再鑄整理字本 3.0%, 乙亥字本 1.6%로 戊申字本의 비율이 가장 높다. 英·正祖朝를 대표하는 戊申字本과 丁酉字本이 71.2%에 이르고 있다.

14) 一般木板本과 乙亥字鑿刻本으로 나누어져 있다.

15) 陰刻碑銘을 박아낸 石刻本과 1종과 英祖御筆을 陽刻한 木刻本 1종 등 2종이다.

16) 手稿本 등의 특징적 사항 없이 寫字官 또는 書寫者의 필사에 해당되는 正書本 2종이다.

17) 訓鍊都監字를 字體로 細區分하면 甲寅字體와 乙亥字體 2종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목활자의 종류는 甲寅字體訓鍊都監字, 乙亥字體訓鍊都監字, 生生字 등 3종이 된다. 訓鍊都監字는 甲寅字體와 乙亥字體 외에도 庚午字體, 甲辰字體 등이 더 제작되었지만 대상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8) 더 자세한 분류는 현황 파악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2차 분류까지만 진행하였다.

19) 분류표 또는 기관에 따라 政法類의 용어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集部는 總集類, 別集類, 詞曲類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표 3> 주제별 분포 현황

區分	細區分	書名	數量(種)	比率(%)
經部	易類	周易傳義大全	1	0.9
	春秋類	春秋胡氏傳集解	1	0.9
	孝經類	孝經大義	1	0.9
	四書類	大學諺解, 大學章句大全, 中庸章句大全	3	2.8
	小學類	訓蒙字會, 奎章全韻	2	1.9
		小計	8	7.4
史部	編年類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皇明通紀輯要, 明紀編年, 肅廟寶鑑, 國朝寶鑑	5	4.6
	別史類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 國語	2	1.9
	雜史類	闡義昭鑑, 辛卯重光錄	2	1.9
	抄史類	史記英選	1	0.9
	詔令奏議類	御製大訓 I, 御製大訓 II, 御製訓書, 御製抑箴, 御製勤政訓諭, 永垂百世錄, 御製繪音, 諭入庭宗親文武百官繪音, 諭中外大小臣庶繪音,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繪音, 諭湖南民人等繪音, 諭大小臣僚繪音,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繪音, 御製表忠繪音, 加鬯申禁事目, 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繪音,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繪音,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繪音, 皇明詔令	19	17.6
	傳記類	瑢源系譜記略 I, 文廟享祀錄, 兩陵誌狀續編, 梁大司馬實記, 三陵誌狀續編, 睿陵誌狀, 瑢源系譜記略 II	7	6.5
	職官類	弘文館志, 奎章閣志	2	1.9
	政書類	繼述受宴錄, 文臣講製節目, 王世子冊封慶龍虎榜, 乙卯式年司馬榜目, 大典會通, 兩銓便攷 I, 三班禮式 I, 六典條例, 三班禮式 II, 兩銓便攷 II	10	9.3
	金石類	黔巖紀蹟碑銘	1	0.9
		小計	49	45.4
子部	儒家類	心經附註 I, 近思錄 I, 聖學輯要, 近思錄 II, 心經附註 II, 女四書, 小學諺解, 小學集註, 心經附註 III, 御製孝悌編, 御製小學指南, 御製續永世追慕錄, 御製樹德全編, 追慕垂戒錄, 朱書百選	15	13.9
	醫家類	諺解胎產集要, 東醫寶鑑, 新刊仁齋直指方論	3	2.8
	藝術類	列聖御筆, 代券宸翰, 御製御筆, 英祖御筆	4	3.7
	雜家類	四部手圈	1	0.9
		小計	23	21.3

區分	細區分	書名	數量(種)	比率(%)
集部	總集類	列聖御製, 詳說古文眞寶大全, 光國志慶錄, 景賢堂廢載帖, 迎恩慶喜錄, 君臣同會錄, 受爵廢韻錄, 續光國志慶錄, 便殿耆耆同會錄, 舊邸庭中廢韻錄, 耆科廢載錄, 慶運宮廢載錄, 唐宋八子百選, 御製廢載帖, 瓊林聞喜錄, 廢載軸 I, 廢載軸 II, 太學恩杯詩集, 文苑酬獻續編, 廢進詩 I, 廢進詩 II	21	19.4
	別集類	纂註分類杜詩, 御製自醒錄, 揄攘盛烈錄, 御製讀書錄, 御製近八裕昆錄, 英宗大王御製續編	6	5.6
	詞曲類	國朝樂章	1	0.9
		小計	28	25.9
合計			108	100

대분류는 經部 7.4%, 史部 45.4%, 子部 21.3%, 集部 25.9%로 史部の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英·正祖朝에 배포된 ‘綸音’의 종류가 많고, 高宗朝 ‘典禮書’의 간행과 배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소분류의 비율은 總集類 19.4%, 詔令奏議類 17.6%, 儒家類 13.9%, 政書類 9.3%의 순서로 나타난다. 소분류에서는 集部の 하위 항목인 總集類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대분류에서 史部の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대비된다. 總集類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廢進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英·正祖朝에는 국가 행사에 군신이 모여 酬唱하고 이를 모아 서적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잦았다. 대상본 중에는 『光國志慶錄』, 『景賢堂廢載帖』, 『迎恩慶喜錄』, 『君臣同會錄』, 『受爵廢韻錄』, 『續光國志慶錄』, 『便殿耆耆同會錄』, 『舊邸庭中廢韻錄』, 『耆科廢載錄』, 『慶運宮廢載錄』, 『御製廢進帖』, 『太學恩杯詩集』, 『廢載軸』, 『廢進詩』 등이 있다. 또한 正祖朝의 『廢載軸』은 統一書名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는 여러 행사에서 나온 시가를 한데 묶어 배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다양하다.²⁰⁾

20) 1795년(正祖 19) 華城行宮에서 惠慶宮의 회갑연을 열며 진행됐던 進宴, 查閱, 養老宴에서 酬唱한 詩歌들로 개별 서명은 『華城奉壽堂進饌廢載軸』, 『華城將臺閣武廢載軸』, 『華城洛南軒養老廢載軸』, 『慈宮周甲誕辰廢載軸』 등이 있고, 매년 봄 신하들과 함께 內苑에서 꽃구경을 하며 지은 『內花賞花戊申廢載軸』, 『內花賞花壬子聯韻軸』 등과 洗心臺에 행차하여 풍광을 즐기며 지은 『洗心臺辛亥廢載軸』, 『洗心臺壬子廢載軸』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주제는 史部の 詔令奏議類로 ‘訓諭文’이나 ‘綸音’이 대표적이다. ‘訓諭文’과 ‘綸音’의 작성과 배포는 列聖朝에 흔히 있던 일이지만 문서류가 아닌 서적으로 배포된 것은 英·正祖朝에 와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英祖朝에는 『御製大訓』이 수정·보완을 거쳐 세 차례나 배포되었고,²¹⁾ 『御製訓書』, 『御製抑箴』, 『御製勤政訓諭』, 『永垂百世錄』 등이 있으며, 正祖朝에는 『御製綸音』,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諭中外大小臣庶綸音』,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諭湖南民人等綸音』, 『諭大小臣僚綸音』, 『御製王世子册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御製表忠綸音』, 『加髻申禁事目』, 『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등이 배포되었다.²²⁾

‘賡進錄’과 ‘綸音’의 주제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소통을 중요시하는 왕조의 통치 이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각종 반포문 등이 다량의 서적으로 인쇄·유통되었다는 점은 국정의 증거를 남긴 측면에서 當該 왕조의 기록 정신이 매우 투철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6. 賜給處 分析

조선시대의 서적 간행은 정부의 주도하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書院, 鄉校, 寺刹 등에서 일부 간행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그 역시 지방 정부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특히 經書, 史書, 政書, 禮書, 兵書 등 국정운영과 통치이념에 관련된 특정 주제의 서적은 더욱 그러했다.

이렇듯 판매와 보급의 목적이 아닌 소극적 출판 정책은 서적을 소수의 기득권

21) 1741년(英祖 17), 1755년(英祖 31), 1769년(英祖 45)에 각각 사급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앞선 2종의 『御製大訓』이 전해지고 있다.

22) 正祖朝에는 열거된 것보다 훨씬 많은 ‘綸音’이 배포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지만 규장각과 장서각에 전해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내사본 綸音이 많이 있다. 綸音은 『賡進錄』과 같이 合綴本의 형태로도 전해진다.

만 다를 수 있는 재화로 만들었고 이는 교정, 편집 등 내용적 측면에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刊行地, 刊行處, 刊行年 등 서지적 측면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³⁾ 따라서 간행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내사기의 賜給處를 분석하여 서적의 인쇄규모와 배포범위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사본의 사급 행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賡進錄』처럼 당해 서적의 관련자에게만 하사되거나²⁴⁾ 둘째, 특정 賜給處에만 하사되거나²⁵⁾ 셋째, 『綸音』, 『禮書』와 같은 生活書를 전국 단위로 배포하는 경우이다.²⁶⁾

一 예로 1665년(顯宗 6) 右贊成 宋時喆²⁷⁾에게 사급된 『周易傳義大全』은 조선 시대에 흔히 출판되었던 서적이다. 四書三經을 비롯한 經書는 원문만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본도 마찬가지이다.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간행 정보를 알 수 없었으나 사급 과정에서 쓰인 내사기를 통해 정확한 간행 시기를 밝힐 수 있었다.²⁸⁾ 賜給者의 官名이 右贊成이므로 최소 종1품관 이상에게는 모두 사급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추후 司憲府 掌令 등 기타 관료가 사급 받은 동일본이 발견된다면 해당 품계 이상의 관료까지 사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시의 종1품 이상 또는 정4품 이상의 正員을 산술하면 대략적인 인쇄 규모와

23) 刊記가 없어 序·跋文 등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 그마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刊記가 있어도 '庚申六月日刊' 등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시대 추정에 오류를 일으키는 일도 많다. 관련면 기술 방식은 19세기말 일본식 신연화자 인쇄방식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24) 『英祖實錄』 118卷 48年1月5日. “名曰『便殿耆耆同會錄』與頒印『賡載錄』以活字同印內入入侍諸臣一體頒賜.”

25) 『御製訓諭』 文中. “手寫其訓命刊粧橫三件一件元良冠翌日朝謁時面賜一付政府勸股肱而自勉一件暨板付史局藏于金籙.”

26) 『御製科弊釐正綸音』 卷末. “歲己卯(1759)九月二十一日傳曰今番大小科綸音節目令禮曹活印一件內入一件置政府一件置禮曹一件置國子五件分藏史庫二十一件頒布于八道三都…”

27) 1610(光海君 2)-1673(顯宗 14). 號는 雪村, 本貫은 礪山(익산)이다. 1610년(光海君 2)에 출생하여 1653년(孝宗 4) 別試文科 丙科에 급제하였다. 掌令, 執義 등을 역임하고 후에 贊成의 반열에 올랐다.

28) 장서각에 동일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간행 시기를 알 수 없어 [刊年未詳]으로 남아 있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사본을 통해 간행 시기를 확정할 수 있었다.

사급 범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내사본에만 해당되므로 더 다양한 서적에 적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賜給處는 기관과 개인으로 나누어진다. 145건에서 賜給處를 알 수 없는 10건을 제외한 135건 중 기관의 내사본은 7건으로 史庫本 1건과 官廳本 6건이다. 사고본은 五臺山史庫에 소장되었던 『東醫寶鑑』으로 ‘국가지정문화재(寶物 第1085-1號)’이자 ‘UNESCO세계기록유산’이다.²⁹⁾ 五臺山史庫本은 일본에 약탈되었던 실록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규장각 장서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五臺山史庫本 『東醫寶鑑』이 과거 어떠한 경로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될 수 있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³⁰⁾

관청은 중앙정부 소속의 議政府, 成均館, 義禁府와 지방의 京畿監營, 咸興府 등 6개 기관에 사급되었던 서적으로 議政府 2건과 나머지 官廳本 각 1건씩이 전해지고 있다. 개인의 내사본은 128건으로 賜給者의 직위는 洛川君, 密安君, 綾城尉 등 종친을 비롯하여 領議政(정1품), 戶曹判書(정2품) 등의 고위직과 待敎(정7품), 檢閱(정9품) 등의 하위직에도 사급되었고, 內官과 벼슬에 나가지 못한 幼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사급자를 살펴보면 金功, 宋浚吉, 李觀徵, 權尙夏, 宋奎濂, 金致仁, 徐有渠 등의 인물이 눈에 띈다.

金功은 號 柏巖, 本貫은 禮安이다. 1540년(中宗 35)에 출생하여 1576년(宣祖 9)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大司成으로 있던 1608년(宣祖 41)에 『諺解胎產集要』를 하사받았다.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며 기근 구휼과 수해 복구 등 목민에 힘써 백성으로부터 칭송 받았다. 忠淸道觀察使, 安東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宋浚吉은 號 同春堂, 本貫은 恩津이다. 1606년(宣祖 39)에 출생하여 젊은 시절 학문에만 열중하다가 1649년(仁祖 27) 金集(1574-1656)의 천거로 등용되었다. 卒年인 1672년(顯宗 13) 左參贊으로 재임하면서 『心經附註』를 하사받았다.

29) 동일본으로 규장각 소장본은 太白山史庫의 내사본이고, 장서각 소장본은 내사가 없이 내사인 『宣賜之記』만 날인되어 있다.

30) 이와 관련된 사례로 赤裳山史庫의 내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거나, 太白山史庫의 내사본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전래과정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金長生(1548-1631)의 문인으로 三宋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大司憲, 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李觀徵은 號 芹翁·芹谷, 本貫은 延安이다. 1618년(光海君 10)에 출생하여 1653년(孝宗 4)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漢城府判尹으로 있던 1680년(肅宗 6)에 『列聖御筆』을 하사받았다. 楷書에 대가였으며, 金生(통일신라, 711-791) 서체에 해박하였다. 禮曹判書, 吏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宋奎濂은 號 霽月堂, 本貫은 恩津이다. 1630년(仁祖 8)에 출생하여 1654년(孝宗 5) 式年文科 乙科에 급제하였다. 大司憲으로 있던 1705년(肅宗 31)에 『心經附註』를 하사받았다. 篆書와 籀書에 능하였고 宋時烈·宋浚吉과 함께 三宋으로 불렸던 인물로 大司諫, 大司成, 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權尙夏는 號 菴菴·寒水齋, 本貫은 安東이다. 1641년(仁祖 19)에 출생하였다. 侍講院 進善으로 있던 1696년(肅宗 22) 12월 『聖學輯要』, 戶曹參議로 있던 1699년(肅宗 25) 7월 『皇明通紀輯要』, 吏曹參議로 있던 1700년(肅宗 26) 8월 『明紀編年』, 副司直으로 있던 1701년(肅宗 27) 7월 『近思錄』을 각각 하사받았다. 宋時烈(1607-1689)이 죽자 유언에 따라 萬東廟와 大報壇을 세워 明 神宗과 毅宗을 제향하였다. 송시열 사후 吏曹判書, 左議政, 判中樞府事 등 고위직에 거듭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소장본 중 最多 내사본의 주인공은 金致仁이다. 號는 古亭, 本貫은 淸風이다. 1716년(肅宗 42)에 출생하여 1748년(英祖 24) 春塘臺 文科에서 장원급제하였다. 英祖朝에 『揄揚盛烈錄(1763)』, 『御製小學指南(1766)』, 『御製近八裕昆錄(1769)』, 『辛卯重光錄(1772)』을 하사받았고, 正祖朝에 『文臣講製節目(1781)』,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 『加髡申禁事目(1788)』을 하사받아 모두 7건의 내사본이 전하고 있다. 『明義錄(1777)』, 『大典通編(1785)』 등을 편찬하였고, 各曹의 判書와 領議政을 지냈다.

徐有渠는 號 楓石, 本貫은 達城이다. 1764년(英祖 40)에 출생하여 1790년(正祖 14) 增廣文科 丙科에 급제하였다. 1796년(正祖 20) 전국의 책판 목록을 정리한 『鏤板考』를 완성하였고, 농업정책 및 농업경제와 관련된 여러 농서를 집대성하

여 『林園經濟志』를 저술하였다. 1834년(純祖 34) 전라감사로 있을 때는 백성을 구황코자 『種藷譜』를 편찬·보급하는 등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규장각 檢校待敎로 있던 1795년(正祖 19) 10월 『賡載軸』을 하사받았다. 徐有槩의 다른 내사본과 관련 문헌이 현재 일본 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7. 結 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은 외부의 기증본과 자체 수집본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다. 기증본 중에서 특히 一山文庫에 내사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밖에 勝溪文庫, 義山文庫, 星湖文庫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앞서 연구된 규장각과 장서각의 내사본과 마찬가지로 17세기 이전을 뛰어넘는 내사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板種의 다양성이 갖는 서지적 가치와 내사기 및 사급자의 면모로 보는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 된다. 이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 중 내사기와 내사인이 모두 존재하는 내사본은 모두 14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최고본은 1553년(明宗 8)에 사급된 鄭得의 『春秋胡氏傳集解』이며, 최근본은 1901년(光武 5)에 사급된 李哲應의 『璿源系譜記略』이다. 『春秋胡氏傳集解』는 현전하는 국내·외 내사본의 종합적 시기를 고려할 때 매우 앞선 조선전기에 속하는 귀중본이며, 『璿源系譜記略』은 나라의 멸망 직전까지 사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시기별 분포 현황은 英祖朝가 33.8%로 가장 많고, 正祖朝가 2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적 출판 사업이 활발해지는 肅宗朝부터 정점에 이른 正祖朝의 내사본을 합산하면 전체의 약 66.2%에 해당되어 조선후기 내사본의 상당수가 이 시기에 출판·사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판종별 분포 현황은 금속활자본이 약 6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목판본이 30.5%를 차지하고 있다. 두 판종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쇄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의 91.7%를 점유하고 있다. 금속활자본 중에서는 戊申字本이 48.4%로 가장 많아 전체 금속활자본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丁酉字本(22.8%)과 합산하면 전체 금속활자본의 71.2%를 차지해 英·正祖朝 인쇄 출판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주제별 분포 현황은 대분류에서 綸音과 典禮書를 포괄하는 史部가 45.4%로 가장 많고 集部와 子部는 각각 25.9%와 21.3%로 비슷한 수준이다. 소분류에서는 廣進錄이 포함되는 總集類의 비율이 19.4%로 가장 높고, 綸音이 들어 있는 詔令奏議類 17.6%, 儒家類 13.9%의 순서로 나타난다. 국정운영과 밀접한 역사·제도 등을 포괄하는 史部의 비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통치이념을 지속적으로 연구·주석한 儒學書의 편찬과, 군신 간 친목하며 酬唱한 廣進錄 등의 간행과 배포는 당대 조선 왕조가 추구하는 국정의 방향성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내사본의 賜給處는 크게 기관과 개인으로 나누어지며, 기관은 史庫와 官廳, 개인은 宗親과 臣僚로 세분화 시킬 수 있다. 기관 賜給處는 五臺山史庫, 議政府, 成均館, 義禁府, 京畿監營, 咸興府 등 6곳으로 확인되며 중앙과 지방관청이 모두 사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개인 賜給者는 洛川君, 密安君, 綾城尉 등 宗親을 비롯하여 정1품 領議政에서 정9품 檢閱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內官 및 未官의 幼學까지도 서적의 사급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宋時烈과 함께 三宋이라 불리는 宋浚吉, 宋奎濂과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 徐有榘의 내사본 실물이 전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내사본을 사급 받은 인물로는 正祖朝 영의정을 지낸 金致仁으로 총 7건이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纂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90.
-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1-6』.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
- 김남기. “조선시대 君臣의 唱和와 그 의미: 규장각 소장 廣載軸과 聯韻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8집(2006. 12). 141-176.
- 白 麟. “內賜記와 宣賜之記에 對하여.” 『國會圖書館報』 제6권 제8호(1969. 10). 8-19.
- 沈喁俊. 『內賜本版式·古文書套式 研究』. 서울: 一志社, 1990.
- 安秉禧. “內賜本の 한 研究.” 『藏書閣』 제8집(2002. 12). 5-30.
- 尹炳泰. “內賜記와 內賜印記.” 『문헌정보학연구지』 제8호(1983. 2). 25-43.
- 尹炳泰. “內賜記 이야기.” 『古書』 제4호(1997. 4). 7-20.
- 李殷澤. “菱花板製作 및 內賜記研究.” 『도서관학논집』 제2권(1975. 12). 79-97.
- 李在俊. “藏書閣 所藏 內賜本 研究.” 碩士學位論文.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 李在俊·宋日基. “藏書閣 所藏 內賜本の 書誌的 研究.” 『書誌學報』 제33호(2009. 6). 153-184.
- 李在俊·宋日基. “朝鮮時代 內賜本の 內賜記 記述 形式考.” 『書誌學研究』 제44집(2009. 12). 85-118.
- 李在俊·宋日基. “奎章閣 所藏 內賜本 研究: 個人 內賜本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12. 6). 365-385.
- 李在俊·宋日基. “日本 所在 16世紀의 朝鮮 內賜本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2013. 12). 29-44.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부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내사본 목록(內賜順)

No.	書名	板種	內賜年	賜給處
1	春秋胡氏傳集解	乙亥字	1553.03	鄭得
2	古今歷代十九史略通攷	木板	1568.05	宋純
3	諺解胎產集要	訓鍊都監字	1608.01	金玊
4	訓蒙字會	木板	1613.09	鄭昌衍
5	東醫寶鑑	訓鍊都監字	1614.02	五臺山
6	纂註分類杜詩	訓鍊都監字	1615.06	李德洞
7	周易傳義大全	木板	1665.09	宋時喆
8	心經附註	戊申字	1672.08	宋浚吉
9	新刊仁齋直指方論	戊申字	1675.01	羅以俊
10	列聖御製	木板	1680.01	柳譚厚
11	詳說古文眞寶大全	戊申字	1680.05	李耆晚
12	列聖御筆	木板	1680.08	李觀徵
13	近思錄	木板	1687.03	李敏叙
14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戊申字	1692.11	-
15	大學諺解	戊申字	1695.03	任胤元
16	大學章句大全	戊申字	1695.03	任胤元
17	中庸章句大全	戊申字	1695.03	任胤元
18	聖學輯要	戊申字	1696.12	權尙夏
19	皇明通紀輯要	戊申字	1699.07	權尙夏
20	明紀編年	戊申字	1700.08	權尙夏
21	近思錄	戊申字	1701.07	權尙夏
22	光國志慶錄	木板	1703.07	尹趾完
23	心經附註	戊申字	1705.11	宋奎濂
24	肅廟寶鑑	戊申字	1730.05	成德潤
25	女四書	戊申字	1737.03	[李]縑
26	孝經大義	木板	1737.10	李宗迪
27	御製大訓	木板	1741.10	李倚天
28	小學諺解	戊申字	1744.03	任珽
29	小學集註	戊申字	1744.03	任珽
30	景賢堂廢載帖	筆寫	1748.05	李成中
31	心經附註	戊申字	1753.04	孫孝采處
32	御製大訓	木板	1755.04	金履萬

No.	書名	板種	內賜年	賜給處
33	代券宸翰	拓本	1755.11	李成中
34	闡義昭鑑	戊申字	1755.11	閔百行
35	闡義昭鑑	戊申字	1755.11	李養源
36	御製訓書	木板	1756.07	-
37	璿源系譜記略	木板	1760.05	[議政府]
38	御製自醒錄	戊申字	1763.00	洪重孝
39	揄攘盛烈錄	木板	1763.01	[李]悌
40	揄攘盛烈錄	木板	1763.01	金致仁
41	御製孝悌篇	戊申字	1763.08	金叙九
42	御製孝悌篇	戊申字	1763.08	南泰齊
43	御製抑箴	戊申字	1763.09	金叙九
44	迎恩慶喜錄	木板	1764.08	沈履之
45	國朝樂章	戊申字	1765.04	議政府
46	文廟享祀錄	木板	1765.09	[成均館]
47	御製小學指南	戊申字	1766.01	金致仁
48	繼述受宴錄	戊申字	1766.09	李灌
49	繼述受宴錄	戊申字	1766.09	具敏和
50	御製御筆	木板	1767.04	元重會
51	御製讀書錄	木板	1767.11	權善
52	御製讀書錄	木板	1767.11	南泰齊
53	御製近八裕昆錄	木板	1769.05	金致仁
54	君臣同會錄	戊申字	1769.09	-
55	御製續永世追慕錄	戊申字	1770.09	鄭棠
56	受爵賡韻錄	戊申字	1770.10	洪修輔
57	御製勤政訓諭	木板	1771.01	李應協
58	續光國志慶錄	木板	1771.10	[李]悌
59	御製樹德全編	木板	1771.12	李邦綏
60	御製樹德全編	木板	1771.12	李徽遠
61	御製樹德全編	木板	1771.12	沈鏞
62	便殿耆耇同會錄	戊申字	1772.01	南泰齊
63	舊邸庭中賡韻錄	木板	1772.01	金華鎮
64	辛卯重光錄	戊申字	1772.02	金致仁
65	耆科賡載錄	戊申字	1772.02	南泰齊
66	耆科賡載錄	戊申字	1772.02	沈能建

No.	書名	板種	內賜年	賜給處
67	永垂百世錄	戊申字	1772.03	鄭基安
68	追慕垂戒錄	戊申字	1772.07	李邦綏
69	英祖御筆	木板	1773.01	趙明爽
70	慶運宮廢載錄	壬辰字	1773.10	洪鳴漢
71	慶運宮廢載錄	壬辰字	1773.10	具敏和
72	英宗大王御製續編	顯宗實錄字	1776.07	[金鍾秀]
73	御製繪音	壬辰字	1776.07	沈履之
74	文臣講製節目	丁酉字	1781.03	金致仁
75	唐宋八子百選	丁酉字	1781.06	成大中
76	黔巖紀蹟碑銘	拓本	1781.08	金載瓚
77	諭入庭宗親文武百官繪音	丁酉字	1782.11	金致仁
78	諭中外大小臣庶繪音	丁酉字	1783.01	金具性
79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事民繪音	丁酉字	1783.10	李祖承
80	諭湖南民人等繪音	丁酉字	1783.10	李祖承
81	諭大小臣僚繪音	丁酉字	1784.07	李性淳
82	諭大小臣僚繪音	丁酉字	1784.07	金載瓚
83	御製王世子冊禮後…蕩減繪音	丁酉字	1784.08	李義逸
84	王世子冊封慶龍虎榜	木板	1784.11	洪秀輔
85	御製廢進帖	筆寫	1787.08	[京畿監營]
86	御製表忠繪音	丁酉字	1788.04	曹允大
87	加鬣申禁事目	丁酉字	1788.10	成海應
88	加鬣申禁事目	丁酉字	1788.10	金致仁
89	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繪音	丁酉字	1788.10	-
90	瓊林開喜錄	壬寅字	1792.01	李在學
91	朱書百選	丁酉字	1793.06	李陽永
92	乙卯式年司馬榜目	木板	1795.02	李用謙
93	廢載軸	生生字	1795.09	-
94	廢載軸	生生字	1795.09	李祖承
95	廢載軸	生生字	1795.09	李儒尙
96	廢載軸	生生字	1795.09	權峻
97	廢載軸	生生字	1795.09	金邁淳
98	廢載軸	生生字	1795.10	權峻
99	廢載軸	生生字	1795.10	李祖承
100	廢載軸	生生字	1795.10	-

No.	書名	板種	內賜年	賜給處
101	賡載軸	生生字	1795.10	徐有渠
102	賡載軸	生生字	1795.10	洪仁浩
103	太學恩杯詩集	整理字	1799.03	俞伯煥
104	太學恩杯詩集	整理字	1799.03	閔祖榮
105	御定四部手圈	木板	1802.05	柳師謨
106	史記英選	丁酉字	1838.04	-
107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	丁酉字	1839.11	任爽朝
108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	丁酉字	1839.11	李蘭孝
109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論音	丁酉字	1839.11	李莊緒
110	國朝寶鑑	木板	1849.03	-
111	兩陵誌狀續編	顯宗實錄字	1850.06	尹定鉉
112	史記英選	丁酉字	1853.03	尹秉原
113	文苑黼黻續編	壬寅字	1852.11	尹致聖
114	賡進詩	整理字	1854.06	李載元
115	賡進詩	整理字	1856.06	尹致秀
116	賡進詩	整理字	1856.06	徐憲淳
117	國語	再鑄整理字	1859.07	李敦崇
118	梁大司馬實記	木板	1860.04	-
119	三陵誌狀續編	顯宗實錄字	1865.07	李寅爽
120	三陵誌狀續編	顯宗實錄字	1865.07	李敦榮
121	睿陵誌狀	顯宗實錄字	1865.07	興仁君
122	睿陵誌狀	顯宗實錄字	1865.07	李奎徹
123	大典會通	木板	1865.11	李敦榮
124	兩銓便攷	全史字	1865.11	李顯稷
125	奎章全韻	木板	1866.02	李容和
126	三班禮式	木板	1866.08	金炳德
127	三班禮式	木板	1866.08	閔奎鎬
128	六典條例	全史字	1867.05	李淳翼
129	三班禮式	木板	1868.08	[咸興府]
130	奎章全韻	木板	1869.11	鄭元世
131	兩銓便攷	全史字	1870.11	義禁府
132	兩銓便攷	全史字	1870.11	[南廷益]
133	兩銓便攷	全史字	1870.11	李淳翼
134	弘文館志	全史字	1871.01	-

No.	書名	板種	內賜年	賜給處
135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06	安秉瑞
136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06	閔謙鎬
137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06	李起鍾
138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06	李景宇
139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10	李應夏
140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10	趙義元
141	御製諭大小臣僚…斥邪繪音	壬辰字	1881.10	尹胄鉉
142	奎章閣志	丁酉字	1885.00	李範晉
143	奎章閣志	丁酉字	1890.00	[李承五]
144	皇明詔令	再鑄整理字	1898.08	-
145	璿源系譜記略	木板	1901.07	李哲應

